



김기태 “4번타자 원점 다시 생각”

올해 부진했던 최형우 3번 내리고 안치홍 4번 기용
생애 최고 기록으로 해결사 우뚝...3번 성적 더 좋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겠다.” KIA 타이거즈의 2019시즌 타순이 어떻게 될까. 2019시즌의 야수진의 주목거리들 본다면 외국인타자 제레미 해즐베이커의 기용법, 4번 타자의 주인공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도, 젊은 황태인과 최원준의 주전 확보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안치홍이 4번 타순을 유지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김 감독은 “올해는 최형우를 3번으로 내리고 안치홍을 4번으로 기용했다. 내년에도 똑같은 타순을 유지할 것인지는 계속 생각하고 있다. 아마 스프링캠프까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3~4번 타순에 다시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였

다. 올해 안치홍은 생애 최고의 기록을 세우며 해결사로 우뚝 섰다. 팀내에서 가장 많은 118타점을 올렸고 득점권 타율도 4할3리를 기록했다. 결승타도 15개(리그 3위)를 터트렸다. 초반에는 3번타자로 출전하다 어느새 4번을 꿰찼다. 4번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차분하게 수행을 했다.

올해 안치홍을 4번으로 기용한 이유는 장타력과 득점권 타율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타순별 성적을 보면 3번타자가 살짝 나았다. 192타수 3할7푼5리, 9홈런, 47타점을 기록했다. 4번타자는 228타수 3할1푼리, 7홈런, 49타점이었다.

거꾸로 부동의 4번이었던 최형우의 상대

적인 부진도 한몫을 했다. 전반기에는 상대의 시프트 등에 막혀 득점권 타율이 낮아졌고 홈런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3번으로 내려가면서 후반기는 강한 타자로 돌아와 내년 다시 4번타자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최형우는 2017시즌 4번타자로 중심을 잡아주면서 타순의 힘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노릇을 해주었다. 우승의 원동력이었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팀에게는 최형우가 4번의 능력을 회복하면 가장 좋은 그림일 수 있다.

안치홍은 3번타자로 부담을 덜어주면 지표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안치홍은 최근 심상치 않은 장타력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시즌에는 장타력을 폭발할 수도 있다. 올해는 23홈런에 그쳤지만 30홈런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최형우가 다시 4번타자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안치홍이 계속 집권을 할 것인지 흥미로운 내년의 주목거리이다.



ESPN “류현진, 내년 시즌 후 FA 랭킹 30위”

류현진(31·LA 다저스)이 내년 FA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ESPN은 2일(한국시간) 류현진이 2019시즌 후 FA 랭킹에서 30위라고 보도했다. 전체 30위, 투수 12위에 해당한다.

ESPN은 “류현진의 올해 평균자책점 1.97은 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정 평균자책점(FIP)이 3.00으로 좋아졌고 개인 최고 탈삼진 비율인 27.5%를 기록했다”며 “그의 건강을 의심할 수 있지만 그는 좋은 투수로 활약했다”고 평가했다.

류현진은 올해 후반기 최고의 성

적을 올린 후 포스트시즌에서도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진출을 견인했다. 월드시리즈에서 승리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한국인 최초로 월드시리즈에서 선발 마운드에 오르기도 했다.

류현진은 다년 계약을 모색하다가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였다. 1790만 달러를 받고 1년 더 다저스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류현진은 자신의 실력과 건강을 의심해 제시하는 작은 규모의 다년 계약을 받아들이기보다 내년 시즌 모든 것을 증명해 가치를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ESPN은 내년 179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류현진이 내년 시즌 성적에 따라 FA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전했다.

‘진가 입증’ 황의조, 남을까? 떠날까?

내년 27살 유럽에 도전 시기...병역 문제 해결 도움 고마움

일본 무대에서 진가를 입증한 황의조(김바 오사카)가 더 큰 무대로 향할 수 있을지.

리그 김바 오사카 소속의 황의조는 지난 1일 끝난 2018시즌 리그에서 16골을 넣어 득점 3위에 올랐다. 27경기 2097분을 소화한 황의조는 경기당 0.686골의 높은 득점력으로 팀의 1부리그 잔류를 이끌었다.

한때 멀어졌던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도 필립 날았다. 와일드 카드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나서 득점왕을 차지했고, 이때의 활약을 발판 삼아 A대표팀 주전으로 등극했다.

최고의 한 해를 보낸 황의조의 거취를 두고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바와의 계약 기간은 내

년 여름까지이지만 올 겨울에도 유럽리그 이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김바는 황의조를 붙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은 2일 “김바가 황의조와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건과 기금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바는 내년 시즌에도 황의조를 주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계약 연장 움직임은 설사 황의조가 다른 팀으로 떠나더라도 합당한 이적료를 챙기겠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황의조도 강등권에 허덕이던 팀이 자신의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보내줬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실제로 연장 계약이 체

결했다면 이런 분위기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매체인 사커다이제스트는 “황의조는 팀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아시안게임에 보내준 사실에 늘 고맙다는 말을 해왔다. 오사카 생활에도 만족하는 중”이라면서도 “유일한 걸림돌은 내년이면 황의조가 27살이 된다는 것이다. 유럽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다. 이 경우 위약금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의조는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2019 아시안컵 출전이 확실시 된다. 이때도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올 겨울이 아니더라도 다가올 여름에는 유럽 이적을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다.

다만 황의조의 리그내 이적은 없을 전망이다. 사커다이제스트는 “아시안게임 이후 김바가 황의조의 리그 내 이적에 대한 위약금 액수를 변경했다”고 소개했다.

뉴스

투수 배영수, 두산 유니폼 입었다...연봉 1억원

두산 베어스가 30일 우완투수 배영수(37)를 영입했다. 연봉은 1억원이다.

배영수는 2000년 1차 지명으로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했다. 올 시즌엔 한화 이글스 소속으로 뛰었고 19년 동안 통산 462경기에 등판해 137승 120패, 평균자책점 4.46의 성적을 기록했다.

두산은 현역 최다승 투수인 배영수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봤다.

풍부한 경험, 다양한 구종 등 장점이 많아 선발과 불펜에서 모두 쓰인 새가 크다고 판단했다.

배영수는 “내년이면 프로에 입단한 지 정확히 20년째가 된다. 그 의미 있는 시즌을 두산에서 보낼 수 있게 돼 영광이다. 팀 우승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28이닝을 소화하며 부활 기운을 보인 배영수는 올해 겨우 11경기에 나와 2승 3패 평균자책점



6.63으로 부진했다.

부상 털어낸 황희찬, 시즌 두 번째 골맛

독일 분데스리가(2부리그) 합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이 시즌 두 번째 골맛을 봤다. 팀을 승리로 이끈 귀중한 한 방이었다.

황희찬은 1일 밤(한국시간) 독일 잉골슈타트 아우디 스포르트 파크에서 열린 2018~2019 독일 분데스

리가 잉골슈타트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격해 득점포를 가동했다.

황희찬의 골은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6분에 터졌다. 루이스 홀트비의 패스를 받아 잡는 동작으로 수비수 한 명을 제친 뒤 왼발슛을 날려 골문을 열었다.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려 진전했으나 황희찬이 찬 공을 막지 못했다. 지난 9월19일 디나모 드레스덴전 이후 9경기 만에 맞은 골이었다.

허벅지 통증으로 11월 A매치 2연전을 건너뛴 황희찬은 지난달 27일 우니온 베를린전에서 풀타임을 뒀는데 이어 이날 골맛까지 보며 건재를 과시했다. 함부르크는 잉골슈타트를 2-1로 꺾었다.

뉴스

■ 심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을 지리산은전, 칠새마을, 화연사, 설진강, 운주루, 패야굴,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